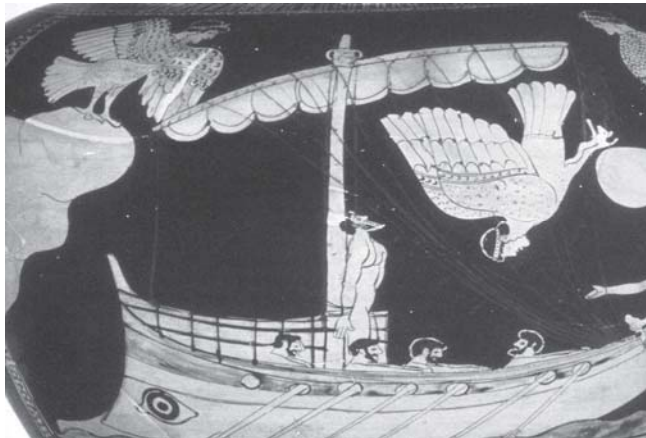


| 해양자료발굴 |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 British Museum

미국 해군이 기록한 한국 해군의 6·25전쟁 일지

| 김주식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6·25전쟁기간 동안 한국 해군과 관련된 자료 중에 『전쟁일지(War Diary)』가 있다. 이 자료는 한국 해군에 관한 전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아닌 미국 해군이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50년 7월 9일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에게 양도되었으며, 극동해군사령관이던 조이(C. Turner Joy) 중장은 같은 날 루시(Michael J. Luosey) 해군중령을 한국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South Korea) 겸 제96.7기동전대사령관(CTG 96.7)으로 임명하였다. 제96.7기동전대사령관의 직책명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 1950년 9월 12일에 제95.7기동전대사령관(CTG 95.7)로 변경되었다. 한국해군사령관은 1952년 5월 6일 루시 중령에서 랭스톤(Charles B. Langston) 해군중령으로 또한 같은 해 7월 5일에는 윌리스(Louis Wallace) 해군대령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윌리스 대령은 정전 때까지 사령관으로 근무하였다.

한국해군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모든 작전지휘관에게 전쟁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미군의 규정에 따라 전쟁일지를 작성하여 미국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다. A4용지로

타이핑된 이 자료는 원래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비밀이 해제되어 미국해군역사국(Division of Naval History)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10권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 22권 중에서 21권을 소개하려 한다.

〈표 1〉 『전쟁일지』의 제목과 송수신자

권수	제 목	작성자	발신자	수신자	통보자
1-2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Naval Forces South Korea (CTG 95,7)	M. J. Luosey	ComNavFE	CNO	CINCPACFLT ComNavForROK
3-5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ROK Naval Forces(CTG 95,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	War Diary of ROK Navy and Marine Corps, and Commander Naval Forces South Korea (CTG 95,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7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ROK Naval Forces (CTG 95,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8-9	상동	상동	Chief, US Naval Advisory Group, ROK	상동	ComUNBlock&CrtFor Com7thFit ComNavFE Naval Attache, Pusan ROK Navy Headquarters ROK Navy Historical sect.
10	자료 미확보				
11-13	상동	Louis Wallace	상동	상동	ComUNBlock&CrtFor Com7thFit ComNavFE Naval Attache, Pusan ROK Navy HDQTRS ROK Navy Historical sect FO2ICFES.
14	War Diary of ROK Naval Forces (CTG 95,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5-2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ComUNBlock&CrtFor Com7thFit ComNavFE ALUSNA ROK Navy HDQTRS ROK Navy Historical sect FO2ICFES.

이 전쟁일지의 공식적인 명칭은 5차례 바뀌었다. 1권의 제목은 『한국해군과 남한해군사령관의 전쟁일지』였으나, 3권부터 5권까지는 『한국해군과 한국해군사령관의 전쟁일지』로, 6권은 『한국해군/해병과 남한해군사령관의 전쟁일지』였다. 7권부터 13권까지의 제목은 다시 『한국해군과 한국해군사령관의 전쟁일지』로 바뀌었다. 14권부터 22권까지의 제목은 『한국해군의 전쟁일지』로 바뀌었다.

작성자는 한국해군사령관인 루시 중령과 윌리스 대령이었지만, 발신자는 미국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과 주한미해군고문단장(Chief, US naval Advisory Group, ROK) 두 명이며, 수신자는 미해군참모총장(CNO)이다. 1권부터 7권까지는 극동해군사령관이 발송자였는데, 이는 한국해군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전쟁일지』를 그대로 참모총장에게 발송했음을 뜻한다. 8권부터 22권까지의 발송자는 주한미해군고문단장인데, 이것은 1952년 2월부터 주한미해군문단장이 한국해군사령관을 겸하기 시작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자료를 참조하라는 뜻으로 통보받은 부서나 사람은 4차례 바뀐다. 1권부터 7권까지의 통보자는 태평양함대사령관(CINCPACFLT)과 한국해군사령관 두 명이었다. 8권부터는 유엔봉쇄호위부대사령관(ComUNBlock&CortFor), 7함대사령관(Com7thFlt), 극동해군사령관, 주부산해군무관(Naval attache, Pusan), 한국해군본부(ROK Navy HDQTRS), 한국해군전사과(ROK Navy Historical Sect)로서 6개 부서였다. 11권의 통보자는 8권의 6개 부서에다가 영국극동기지부사령관(FO2ICFES)이 추가되어 7개 부서가 되었다.

〈표 2〉 『전쟁일지』의 각 권별 기간과 분량

권수	기간	본문	부록	계	권수	기간	본문	부록	계
1	50. 06/25-10/31	108	38	146	12	52. 06/01-30	11	33	44
2	11/01-12/30	49		49	13	07/01-31	12	39	51
3	51. 01/01-04/30	61	114	175	14	08/01-31	8	37	45
4	05/01-10/31	81	83	164	15	09/01-30	9	38	47
5	11/01-30	13	32	45	16	10/01-31	8	35	43
6	12/01-30	14	25	39	17	11/01-30	9	35	44
7	52. 01/01-31	11	26	37	18	12/01-31	8	33	41
8	02/01-29	11	25	36	19	53. 01/01-31	6	31	37
9	03/01-31	12	34	46	20	02/01-28	6	29	35
10	04/01-30				21	03/01-31	7	26	33
11	05/01-31	14	38	52	22	04/01-30	7	26	33
					계	34개월	465	777	1242

『전쟁일지』의 각 권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초기의 경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1권은 전쟁 발발일부터 1950년 10월 30일까지 5개월간, 2권은 2개월간, 3권은 4개월간, 4권은 6개월간이 기록되어 있다. 1951년 11월부터는 매달 한권씩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전쟁의 전개상황이나 한국 해군의 활동상황을 일자와 시간별로 기록한 본문과 특수분야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록으로 구성된다. 본문의 분량은 총 465쪽이고, 부록의 분량은 777쪽이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총 1242쪽의 분량이다. 이는 매달 평균 본문의 분량이 13.6쪽, 부록의 분량이 22.9쪽, 총 분량이 36.5쪽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매일 1쪽 이상 작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표 3〉 본문 내용의 항목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수	명칭		수	명칭		수	명칭		수	명칭
전쟁 일반	7	전쟁상황, 작전통제, 참모회의, 연합군지휘, 지휘관교대, 부대개편, 정전대표단	지상 작전	7	지상전투, 해병작전, 해병전투, 도서방어, 해병이송, 교육훈련, 케릴라전	교육 훈련	6	보급장교교육, 신임장교형성실습, 시관생도형성실습, 신병훈련, 직별교육, 교육훈련	수송 항로	5	등대수리, 해안구조조사, 부빙발견, 북한기해수동결, 태풍
북한 상황	5	동향, 경제, 물가, 병력배치, 전투	해상 작전	11	함정배치, 연합군함정활동, 함정교대, 항공지원, 함포지원, 철수, 호송, 상륙, 경비, 기뢰	의료 지원	6	의무장비인력지원, 헌혈, 병영신, 내병환자, 전염병	일반 선박	7	해운공사선박활동, 일본선박활동, 미수송선활동, 미수선, 어토금지구역, 검색통제, 조업호송
전력 증강	6	전력증강, 함정취역, 함정대여, 함정무장, 함정건조, 무기실형	전과 피해	3	사상자, 전과, 피해	정보 수집	6	정보활동, 사진촬영, 첩보전, 포로인계, 포로심문, 피난민 진술	조난 구조	4	일본어선조난구조, 좌초선, 미국조종사구조, 함정인양
한미 협력	4	해군협력, 육군협력, 미군파견, 한국산업시설현대화 계획	군수 통신	3	군수지원, 탄약소비량, 통신연락	기지 시설	4	기지건설조사, 기지시설, 건설거점지, 공항선거점설교육	기타	7	기념행사, 기념비제막, 귀빈방문, 장병방미, 홀포장 수여, 휴가, 군악연주
									계	90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여러 가지이다. 세부항목은 90가지 이상이며, 이는 16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군수통신, 교육훈련, 의료지원, 정보수집, 기지시설과 같이 전쟁을 지원하는 세부항목이 25가지로 가장 많고, 이어서 지상작전, 해상작전, 전과와 피해와 같은 전투에 관한 세부항목이 21가지로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세부항목은 수송항로, 일반선박, 조난구조와 같은 해상(海事)와 항로에 대한 것으로 16가지이다. 북한의 상황과 전쟁의 일반적인 사항과 같은 전쟁 상황의 세부항목은 14가지이고, 전력증강과 한미간의 협력과 같은 한국 해군력의 증강과 관련된 세부항목은 10가지이다. 그밖에 기념, 방문, 훈포장 수여, 휴가, 군악 연주 같은 기타항목도 있다.

〈표 4〉 부록의 제목

부록명	1권 (50. 6/25-10/31)	2-3권 (50. 11/1-51. 4/30)	4권 (51. 5/1-10/31)	5권 (51. 11/1-1/30)	6-22권 (51. 12/1-53. 4/30)
Able	적선 피해	적선 피해	적선 피해	적선 피해	적선 피해
Backer	한국해군/ 해병전력	한국해군/ 해병전력	한국해군/ 해병전력	한국해군/ 해병전력	한국해군/ 해병전력
Charlie	해운공사선박활동	해운공사선박활동	해운공사선박활동	해운공사선박활동	한국함정함장명단
Dog	군수조달 (TG 95.7)	군수조달 (TG 95.7)	군수조달 (TG 95.7)	군수조달 (TG 95.7)	군수조달 (TG 95.7)
Egg	한국해군정보활동	한국해군정보활동	한국해군정보활동	한국해군정보활동	한국해군정보활동
Fox		한국함정활동	한국함정활동	한국함정활동	한국함정활동
George		한국해군/ 해병수상자	한국해군/ 해병수상자	한국해군/ 해병수상자	
Howe		주한미해군고문단		한국함정함장명단	

부록의 종류도 초기에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권은 5가지이며, 2권과 3권은 8가지, 4권은 7가지, 5권은 8가지이다. 그러나

1951년 12월부터 표기가 시작되는 6권부터는 부록이 6가지로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된 부록의 제목은 ‘한국 해군에 의해 침몰되거나 피해를 당한 적선’,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 ‘한국 해군 함정의 목록과 함장의 명단’, ‘CTG 95.7이 실시한 군수조달’, ‘한국해군의 정보수집활동’, ‘한국 해군의 각 함정별 행동’이다. 1권부터 5권까지는 정형화된 부록 외에 ‘한국해운공사소속선 LST와 FS의 행동’, ‘한국해군과 해병대의 수상자 명단’, ‘주한미해군고문단 명단’이 부록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

부록 독(Dog)은 ‘CTG 95.7이 수행한 군수조달’의 제목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무 : 군수자문, 한국해군군수역량강화, 추가군수지원(자급자족과 효율적인 사용), 도서방어부대지원

조직 : 한국해군 - 식량, 주부식, 동계피복, 담요, 유류, 원자재, 필수품, 컨테이너, 자동차공장설립, 보급시스템, 조직, 장비편성표, 요청서작성, 장비목록과 할당, 보급절차, 회계

함정유지 - 공창정비, 선거입거, 일본수리, 점검, 함정검열, 전기시설, 기관설비, 기관부품과 부속, 닻줄, 수리비용, 상선무장, 기관교육, 함정연수, 함정충돌, 함상태주간보고, 함정유지수리, 부두지원, 함대지원단

병기 - 진해탄약분기조사, 탄약, 포술, 통신, 레이더

의료 - 병원선, 해군병원, 의료활동

도서보급 - 식량, 유류, 방한복, 냉동고, 보급절차의 표준화

기타 - 함동경제위원회, 조립식식당, 주둔지매점, 보급품절도, 자산평가, 차량부품, 일본인고용인, 화폐개혁, 저장시설, 군수품가격

먼저 군수분야와 관련된 CTG 95.7의 4가지 임무가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해군의 군수역량 강화, 자급자족, 효율적인 사용을 목표로 삼은 점이 주목된다. 이어서 조직 항목이 한국해군, 함정유지, 병기, 의료, 도서(島嶼)보급, 기타의 6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중에서 한국 해군과 함정유지는 해군의 가장 기초적인 군수업무와 시스템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심지어 군수조직과 군수요청/보고양식 및 군수지원절차를 규정하는 사항까지 보이고 있다. 이다. 기타 항목에서는 한국의 화폐개혁과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설치가 표기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 해군의 정보수집활동’의 제목이 달린 부록 이지(Easy)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포로 심문, 피난민 진술, 한국해군정보요원 보고, 한국해군정보 보고, 중화민국대사관

지역 : 통영, 마산, 제주, 포항, 울산, 영덕, 고저, 원산, 양도, 여도, 목호, 서남해도서, 군산, 목포, 인천, 초도

내용 : 정보부대조직, 정보입수방법, 입수정보처리, 정보장교교육, 정보원인사이동, 북한동향, 북한정부, 북한행사, 북한물가, 적군배치, 적선배치, 북한대공부대, 북한군일과, 북한후방총국, 창고위치, 주둔상황, 지뢰매설, 트럭운행, 열차운행, 철도재건부대, 아군공격피해

수집한 정보의 출처는 5곳이었다. 정부를 수집한 지역은 남해가 3곳, 동해가 8곳, 서해가 5곳으로 나타난다. 정보의 내용은 정보활동방법, 정보원의 인사이동, 북한정부와 경제 및 공산군의 주둔과 배치현황, 북한군의 군수지원, 지뢰매설, 아군 공격에 따른 북한군의 피해 등이다.

『전쟁일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많은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이다. 1권에 의하면, 미8군사령관(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은 1950년 7월 9일 12시에 “금일 국무총리와 협의했음.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가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에게로 넘어갔음.”이라는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를 받은 극동해군사령관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전보를 예하부대들에게 보냈다. “극동해군사령관이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루시(Michael J. Luosey) 해군중령을 본관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였음. 루시 중령은 추후 임명이 있을 때까지 한국해군의 총참모장과 한국해군부대들과 연락을 취하고, 현 작전들을 계속 지휘할 것.”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 양도한 것은 흔히 1950년 7월 14일로 알려져 있지만, 『전쟁일지』는 한국 해군의 전작권이 그보다 5일 빠른 7월 9일에 양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한국 해병대는 한국 국방장관이 계속 지휘하였다 : 50. 7/22 1730시 본문).

둘째, 인천상륙작전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쟁일지』에 의하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한국 해군의 함정은 14척(PC 4, YMS 6, JMS 4)이었으며, 한국 해병대는 주력연대만 해도 2,662명이었다. 한국 해군의 총참모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해병연대사령관(Commanding Officer of the Regiment)으로 임명되어 미국의 피커웨이함(Pickway)에 승함하였다(50. 9/12). 손 제독은 한·미 해병대를 지휘하여 월미도에 상륙했으며(9/17), 인천시가전과 서울진입작전을 성공시켰다(9/17). 그 결과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nner Joy) 제독은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룩한 훌륭한 성과가 전 세계 군인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음.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맹성, 진취성, 교묘한 기획성을 과시하여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혼란을 일으켰음. 한국 해군의 용기 있는 활동이 아군 작전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음. 수고하였음.” 『전쟁일지』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만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많은 함정과 해병부대도 참가하여 큰 전과를 올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해군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 해군사관생도들이 일본 사세보(佐世保)의 미국 해군기지에서 1개월간 순항훈련을 실시했으며(52. 1/2) 또한 미국 해군의 프리깃함에서 1개월간 함정실습을 하였다(52. 3/4). 한국 해군의 신입소위 71명은 유엔군 함정에 파견되어 함정실습을 하였다(52. 3/11). 한국해군의 보급장교 4명이 미국 해군의 보급병과학교에 입교했으며(52. 1/17), 한국 해군장교 1명이 샌디에고의 함대소나학교에 입교하였다(52. 5/12). 한국 해군의 수병 7명이 미국 해군의 활동사진기사학교에 입교하였다(52. 3/3). 한편, 전쟁 발발시 소형 함정 36척의 해상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 해군은 1953년 4월에 이르자 21척이 증가된 56척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증가된 함정에는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PC(구잠함)와 PF(프리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해군이 전쟁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해군을 도움을 받아 함정을 계속 확보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또한 함정 운용, 작전, 전술, 정보수집, 군수지원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상적인 해군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맥아더라인(MacArthur Line)과 관련된 문제이다. 1951년 3월 10일 극동해군사령관은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일본어선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전문을 한국해군의 작전참모부장에게 보냈으며, 동시에 이를 한국 해군사령관과 제2군수사령관(Commanding General 2nd Logistical Command)에게 통보하였다. 한국 해군의 함정들은 이 전보에 따라 일본 어선의 나포, 부산으로의 이송, 보고서 작성 등을 책임지게 되었다. 실제로 『전쟁일지』는 이 전보를 근거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어선을 실제로 나포했음을 곳곳에서 있어 전시에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해군의 활동이 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한국 해군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쟁일지』에는 대한 해협 해전에 대해 1950년 6월 26일 0030시 본문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적 수송선은 적군을 부산에 상륙시키기 위해 북한 항구를 출항했음이 분명하다. 한국군이 완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부산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였으며, 부산항을 잃었더라면 유엔군의 한국 투입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다.” 극동해군사령관은 1950년 8월 9일 “서해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 해군이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음”이라는 전보를 한국해군사령관에게 보냈으며, 같은 해 8월 18일에 “남해 봉쇄시 한국 해군의 공세적 활동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음”이라는 전문을 보냈다. 1951년 3월 3일 제95.9기동전대사령관(CTG 95.9) 스미스(A. E. Smith) 제독은 한국 함정들이 서해에서 피난민을 수송한 사실에 대해 “한국 해군 함정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95기동함대(CTF 95) 사령관 스미스(Smith) 제독은 한국 해군의 PF 62함이 러시아 전투기 4대와 대공전을 감행했을 때 보여준 전투의지에 대해 한국 해군 총참모장에게 축하전문을 보냈다. 극동해군사령관은 1950년 4월 19일 한국 해군의 총참모장에게 “적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프리깃 62함의 용기와 전투의지는 칭찬받을 만하며, 한국 해군 함정의 전투의지에 대한 본관의 존경과 높은 평가를 재확인하게 되었음. 이를 축하하며, 정말 수고하였음”의 전문을 보냈다. 미군 사령관들의 이러한 찬사들은 한국 해군 함정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활약하고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주는 증거들이다.

『전쟁일지』는 6·25전쟁기간 동안 한국 해군의 활동상황을 미국 해군이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이며, 동시에 배워가면서 전쟁을 수행하던 한국 해군의 실상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SECRET

30 March 1951

No action reported.

31 March 1951

ROK JML 309 departed Pusan 0700I for Taechongdo to relieve JML 306 on station.

Commander U.N. Blockading and Escort Force reported that PF 61 had informed KENYA that occasional raids are being made on the mainland from Teyongpyongdo by friendly youth parties with no identification markings or signals. CTE 95 requested that in order to avoid accident while maintaining the blockade, proposed movements and areas of raids should be reported to CTE 95.12 and 95.11.

CTG 95.9 directed CTG 95.7 institute ROK Navy employment east coast until 8 April as follows:

AMS 501 or 507 to relieve 515 at Wonsan, and 515 then return to Pusan for further duty on the west coast about 7 April. This would leave two sweepers at Wonsan with an additional one at Mukhojin to operate with CTE 95.28 in destroyer HANK.

The following letter was written to Captain Lee, Chief of Staff, ROK Navy Operations, with copies to Commander U.N. Blockading and Escort Force and Commanding General, 2nd Logistical Command.

CRKWF/HSN/jt
ALL Ser: 111
31 Mar 1951

From: Commander South Korean Naval Forces
To: Chief of Staff, ROK Navy Operations
Subj: Capt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1. Existing regulations provided by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prohibits Japanese fishing boats from the line established as 26-00 North, 123-00 East, 33-00 North, 127-40 East; 40-00 North 135-00 East; 45-30 North, 145-00 East; nominally called "The Mac Arthur Line."

2. SCAP has authorized and direct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establish a fisheries inspection system whereby Japanese patrol boats are to enforce the line established above.

3. Japanese fishing boats found beyond this line are fishing illegally, and are subject to seizure if caught by the Korean Navy.

4. The present policy concerning the disposition of the crews and of the boats is as follows:

(a) Ultimate disposition of the boat is subject to ruling of higher authority. However, until this ruling is received, the ROK Navy should use the seized craft as it sees fit.

(b) Crews captured are to be returned to Pusan at the first date convenient to military operations. They are to be turned over to the Second Logistical Command Provost Marshal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further transportation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instructed to take action against the crews of the boats violating the regulations set forth in par. 1 of this letter.

5. A complete report should be submitted to this Command as soon as possible to be forwarded with the prisoners to Japan. The complete report should include as much as possible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 Details of the ship captured:

1. Name	4. Size
2. Owner	5. Registration
3. Type	6. Cargo

DECLASSIFIED

SECRET

3 - 17

<1951년 3월 31일 맥아더라인과 일본어선 나포관련 기사>

SECRET

26 June 1950:

0030 - PC 701 at a range of 6,000 yards opened fire on the enemy ship. After 20 rounds the enemy ship was dead in the water. In order to see the ship in low visibility, PC 701 closed the range to 2,000 yards. The enemy ship then commenced firing at PC 701 with 4 machine guns and a heavy gun aft, estimated 3", thereby disclosing the enemy ship's position. PC 701 fired 20 additional rounds, whereupon her main battery, 5" 50, jammed. The enemy ship continued to fire, one round going through the wheel house of the PC 701, wounding one officer and 3 petty officers. When the enemy fire ceased, PC 701 observed by searchlight the enemy ship listing steeply to port, her mast broken off and sinking rapidly. She observed the ship sink, but a heavy rain squall prevented disclosure of the fate of the troops aboard. They were assumed to have drowned. At the time of the sinking, PC 701 and the enemy ship were 18 miles southeast of Pusan and northeast of TSUSHIMA ISLAND. The enemy transport had evidently left from a North Korean port with the intention of landing enemy troops at Pusan. With a complete diversion of ROK troops in the Seoul area leaving Pusan virtually defenseless, the loss of the port would have seriously handicapped the entrance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to KOREA.

27 June 1950:

0130 - American women and children loaded for evacuation aboard the S.S. PIONEER DALE in Pusan.
0330 - Loading of American evacuees completed.
0630 - S.S. PIONEER DALE with American evacuees aboard sailed for Fukuoka, Japan.
1100 - American embassy in Seoul informed officials concerned that the embassy was being evacuated and that all American personnel would leave Korea as soon as possible. S.S. JESSE LYKES in Pusan alerted as evacuation ship.
1520 - Korean Naval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in Suwon after removal from Seoul.
1600 - 350 Korean Navy personnel arrived in Pusan from Chinnae to establish security of the Pusan port area.

28 June 1950:

0800 - KMAAG representatives in Pusan inform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assist South Korea with arms and men and that all KMAAG personnel would remain in Korea.
0930 - Loading of all evacuees completed on S.S. JESSE LYKES.
0940 - KMAAG representatives in Pusan were ordered by GHQ Tokyo to reestablish Korean Navy Advisory Group, who were then ordered off the S.S. JESSE LYKES.
0945 - S.S. JESSE LYKES sailed for Fukuoka, Japan, with evacuees embarked.

- 5 -

SECRET

DECLASSIFIED

ORIGINAL

<1950년 6월 26일 백두산함의 대한해협해전관련 기사>

S E C R E T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Naval Forces
South Korea (CTG 95.7)

31 October 1950

Signed.


M. J. LUCAS

S E C R E T

ANNEXES

- (A) - Summary of enemy vessels sunk or damaged by ROK Navy
- (B) - Strength report of ROK Navy and ROK Marine Corps
- (C) - Summary of activities of Bureau of Marine LST's and FS's
- (D) - Summary of logistics and procurement activities of CTG 95.7
- (E) - Summary of intelligence activities of ROK Navy

DECLASSIFIED

ORIGINAL

〈제1권(1950. 6-10)의 부록 목록〉

File: CNFE/A12
Serial: 00292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NAVY No. 1165
P.O. SAN FRANCISCO, CALIF.

27/wr

X

FEB 28 1951

SECRET

From: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To: Chief of Naval Operations

Subj: War Diaries; Forwarding of

Ref: (a) CNO Ser 1197P34 of 3 Aug 1950
(b) Admin CinCPacFlt Disp 232121Z of Aug 1950
(c) ComNavFE disp 190614Z NOTAL of Aug 1950

Encl: (1)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Naval Forces
ROK for the period 1 thru 30 Nov 1950
(2) War Diary of ROK Navy and Commander Naval Forces
ROK for the period 1 thru 31 Dec 1950

1. Enclosures (1) and (2) are forwarded herewith in accordance with reference (a).

2. By copy of this letter Commander Naval Forces Republic of Korea is requested to comply in the future with references (a) through (c) which provide the manner in which War Diaries should be prepared and forwarded. Attention is also invited to the fact that the correct designation of CTG 95.7 is Commander Naval Forces,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Commander Naval Forces, South Korea.

"Transmission by United States registered mail or registered guard mail i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 United States Navy Security Manual for Classified Matter."

Copy to
CINCPACFLT
Commander Naval Forces, Republic of Korea

A. K. Mink
A. K. Mink
Chief of Staff

02780

RECEIVED
NAVY
RECORDS SECTION
MAR 5 - 1951
File No. CNFE-1225-57
Copy No. 122
Routed to 02

SECRET

4995-54

DECLASSIFIED

<제2권(1950. 11-12)의 표지, 발신자가 극동해군사령관이다>

SECRET

- 1610 - PC 703 reported that islanders on Yonghung-do (37-40N, 125-42E) had informed her that floating or fixed mines had been placed in the following area of triangulation: Kaemori Light south of Bupo (37-45.1N, 125-37.1E); Chincho Light (37-48.1N, 125-43.1E); Harichi Light (37-45N, 125-38.1E). These mines had been placed supposedly by NK army elements in Haeju, where an estimated battalion with coastal guns were located on a ridge at Kaemori.
- 1712 - ComnavFE approved the request of CTG 96.7 to place Rear Admiral SOHN, Chief of Naval Operations, Korean Navy, in one of the amphibious transports loading at Pusan, subject to the concurrence of the Commanding Officer concerned. Rear Admiral SOHN embarked aboard the USS PICKAWAY (APA-222).
- 1910 - LSI 105 sank three enemy motorboats off Mulkon-ri at Namhae Island.
- 2000 - CTG 96.7 reported to ComnavFE that the ROK Marine battalions numbered approximately 3000 instead of the original 1800, that they were equipped, and were embarked according to plan. U.S. Marine Corps praised their appearance, discipline, morale, state of readiness and handling of all weapons on the firing range. A replacement group of 1000 not equipped would be recruited and trained at Chinhae.
- 2030 - ROKN operation summary indicated a six-man shore party was put ashore on Soyunpyong-do (37-36N, 125-42E). This group then occupied the island, and the enemy attempts to regain position had been repulsed. JMS 302 at Wido reported that the island population of 8000 had evacuated to Sikto. Twenty-four boats on Wido were destroyed to prevent their falling into enemy hands. At 102300 fifteen enemy reinforcements landed at Wido and joined the first group in the hills. The boat that brought them was destroyed. JMS 302 reported that refugees food supply on Sikto was extremely short.

12 September 1950

- 0150 - HMHS MAINS arrived in Pusan for evacuation duty.
- 0600 - YMS 503 sank four enemy sailboats off the south coast of Usodo (34-48N, 125-54E).
- 0900 - PC 703 attacked enemy positions along the coast from Taebudo (37-14N, 126-36E) to fifteen miles north east of Changhang (37-54N, 127-46E), destroying two enemy barracks. During the sweep, she sank two large sailboats and one small motorboat.
- 0901 - CTF 95 as Commander UN Escort and Blockade Forces was activated. CTG 96.7 was redesignated CTG 95.7, Commander SK Naval Forces.
- 1500 - The main force of the ROK Marine Regiment, 2662 men strong under command of Captain SHIN Hyong Chun, Korean Navy, departed Pusan for Inchon aboard USS PICKAWAY (APA-222). One other unit was embarked on various LST's to conduct other phases of the landing operations. Rear Admiral SOHN departed aboard the PICKAWAY as Commanding Officer of the ROK Regiment.
- 2055 - ROKN units reported in the Inchon area for the preassigned phase of the operation. Unit number one, with Commander LEE as Flag and Commanding Officer of PC 702 and consisting of PC 702, PC 703, YMS 501, YMS 502, YMS 503, YMS 510, YMS 512, YMS 515, and YMS 518, were to operate in the vicinity of Tokchok Islands and to report to the USS ROWAN (DD 782). Unit number two, with Commander NAM as Flag and Commanding Officer of PC 701, consisting of PC 701, PC 704, JMS 302, JMS 303, JMS 306, and JMS 307 would operate in the vicinity of Uchong Islands and would report to HMS JAMAICA. Both units were to be on station at 131800.

SECRET

DECLASSIFIED

62

ORIGINAL

<1950년 9월 12일 인천상륙작시 한국 해군관련 기사>

U. S. NAVAL ADVISORY GROUP, REPUBLIC OF KOREA NAVY NAVG/RBF/mja
NAVY NO. 3423
F. P. O., SAN FRANCISCO, CALIFORNIA

AL2
Ser: 0083
18 December 1952

SECRET
SECURITY INFORMATION

From: Chief, U. S. Naval Advisory Group, Republic of Korea Navy
To: Chief of Naval Operations

Subj: War Diary period 1 to 31 October 1952; submission of

Ref: (a) OPNAV INST 3489.4 of 1 July 1951

Encl: (1) War Diary, copies numbered 001 and 002

1. In compliance with reference (a), the War Di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Task Group 95.7" for the period 1 October through 31 October 1952 is submitted.

2. Distribution to other commands is as listed below.

3. Upon removal of enclosure (1), this letter is unclassified.

R. B. Field
R. B. FIELD
By direction

DISTRIBUTION:
CNO (OP-32) (2)
COMUSMACV (3)
COM7THFLT (1)
COMNAVF (4)
ALEXMA (1)
RCK NAVY HDQTRS (3)
RCK NAVY HIST SECT (1)
PO2ICFES (1)

WP 8
59

1336
1-1

0042

DECLASSIFIED

SECRET

cc 60112/i

<1951년 10월 전쟁일지 표지. 발신자가 주한미해군고문단장이다>